

전체적인 법인차 등록대수. 그리고 슈퍼카 전체적으로 다룬 기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30/126768215/2>

올해 법인차 신차 등록 대수와 법인차로 인기를 끌었던 대표 모델의 판매량이 급격히 줄었다. '연두색 번호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8000만 원 법인차 신차등록대수는 2만 74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7%(1만506대)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8000만원 이상 법인차 등록 대수는 3만7906대였다. 1만대 넘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도록 했다.

특히 이른바 '슈퍼카'로 불리는 차량의 법인 차량 등록 대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포르쉐 법인 차량 판매량은 전년보다 47.0% 줄어든 2219대로 집계됐다. 벤틀리(-65.0%), 마세라티(-42.2%), 롤스로이스(-44.4%), 맥라렌(-85.0%) 법인차 판매도 전년에 대비해 크게 줄었다.

국내 고급브랜드인 제네시스 G90 판매량도 전년보다 45.6% 줄어 3607대로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판매량은 63.9% 감소해 1843대를 기록했다.

'난 법인차입니다' 확 드러나게 했더니..."어라, 이 정도?"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01636/?sc=Naver>

29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신차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7% 감소한 2만74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00만원 이상 법인차 등록 대수 3만7906대보다 1만대 넘게 줄어든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특히 역대를 호가하는 스포츠카, 슈퍼카, 럭셔리 브랜드의 법인차 신차등록 대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가장 감소 폭이 큰 브랜드는 애스턴마틴으로 단 한 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2% 급감했다.

같은 기간 벤틀리도 123대가 팔리면서 전년 대비 65% 감소했고 포르쉐는 2219대 팔려 47% 판매량이 줄었다. 마세라티·롤스로이스 등도 각각 전년 대비 42.2%, 44.4% 신차 등록 대수가 급감했다.

법인차로 인기가 높던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와 제네시스 G90도 상황이 비슷했다. G90은 올해 1~7월 전년 대비 45.6% 감소한 3607대가 팔렸다. 같은 기간 벤츠 S클래스는 1843대가

팔리면서 전년 대비 63.9%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측은 "취득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장착이 시작과 동시에 실효성 논란이 있었으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829_0002867970

'연두색 번호판' 효과 뚜렷...올해 법인차 '1만대' 급감

'연두색 번호판' 때문에? 포르쉐·벤틀리·롤스로이스 등 슈퍼카 판매량 뚝...포르쉐 법인 비중 50%↓

올해 들어 1억 원 넘는 고가 수입차 판매량이 뚝 떨어졌다. 슈퍼카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르쉐 등의 판매량이 30% 넘게 감소했다.

판매량 뿐 아니라 법인 비중도 덩달아 줄었는데 포르쉐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 비중이 법인 비중을 앞질렀다.

슈퍼카 브랜드 판매량						
기업	전체		증가율	법인차량		증가율
	2023	2024		2023	2024	
포르쉐	7179	4575	-36.3%	4176	2213	-47.0%
벤틀리	466	175	-62.4%	348	123	-64.6%
마세라티	253	176	-30.4%	170	104	-38.8%
람보르기니	227	248	9.3%	208	206	-0.9%
롤스로이스	183	110	-39.9%	159	89	-44.0%
합계	8308	5284	-36.3%	5071	2735	-46.0%

단위-대, *7월까지 기준, 출처-KAIDA

소비자가만드는신문

14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1억 원 넘는 차량만 판매하는 슈퍼카 브랜드 포르쉐와 벤틀리,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의 7개월간 누적 판매량은 5284대로 전년 동기 대비 36.3% 감소했다.

벤틀리가 175대 판매에 그치며 감소율이 62.4%에 달했고 롤스로이스, 마세라티, 포르쉐 등도 30% 넘는 감소율을 보였다. SUV '우루스'의 인기가 꾸준한 람보르기니만이 248대로 9.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법인 판매량도 5개 브랜드가 일제히 감소했다. 지난달까지 합계 2735대로 전년 동기(5071대) 대비 46% 줄었다. 전체 판매량이 늘었던 람보르기니도 법인 판매량은 206대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다.

법인차량 비중		
기업	2023	2024
포르쉐	58.2%	48.3%
람보르기니	91.6%	83.0%
벤틀리	74.6%	70.2%
마세라티	67.2%	59.0%
롤스로이스	86.8%	80.9%

그동안 슈퍼카 브랜드의 주요 고객은 법인이었다. 업무용 차량의 경우 구매비, 리스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법인 비중도 낮아졌다. 특히 포르쉐는 올해 처음으로 법인 비중이 48.3%로 개인보다 낮아졌다. KAIDA가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법인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마세라티도 50%대(59%)로 떨어지는 등 슈퍼카 브랜드의 효자 고객이던 법인 비중은 올해 들어 감소세가 뚜렷하다.

억대를 넘는 슈퍼카의 판매량이 줄고 있는 데에는 대표적으로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시행'이 꼽힌다. 정부가 법인차의 사적 활용이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새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의 신규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면서 거부감에 차량 구입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차감 떨어지네" 법인 슈퍼카에 '연두색 번호판' 달자...판매량 '뚝'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2414254254737>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이 둔화한 가운데 1억원 이상 고가 차량이 특히 판매가 부진했다. 지난해 럭셔리 브랜드가 역대 판매량을 경신한 것과 대비되는데 연두색 번호판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6월 팔린 수입차 중 1억5000만원 이상 차량은 1만1218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926대에 비해 29.6%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1억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 수입차 판매량도 2만1313대에서 1만7960대로 15.7% 줄어들었다. 상반기 전체 수입차 판매량이 지난해 13만여대에서 올해 12만5000여대로 3.9% 축소된 것에 비해 4~7배가량 큰 감소 폭이다.

벤틀리는 올해 상반기 140대를 팔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386대에 비해 63.7% 급감했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 '1만대 클럽'에 들어간 포르쉐는 올해 상반기 42.8% 감소한 3563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마세라티도 같은 기간 223대에서 155대로 판매량이 30.5% 감소했다. 럭셔리카 브랜드 가운데 람보르기니만 지난해 상반기 182대에서 올해 상반기 195대로 7.1% 증가세를 보였다.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 차량은 오히려 많이 팔렸다.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차량은 2.3%,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2.9% 각각 판매량이 늘었다. 고급리·고물가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체 수입 승용차 판매가 위축됐지만 고가 차량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다.

이는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한 규제가 고가 수입차 구매 수요에 제동을 건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부터 신규·변경 등록되는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 부착해야 한다. 그간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법인을 통한 고가 수입차 구매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구매 수요가 꺾였다. 실제 상반기 법인 명의로 구매한 수입차는 지난해 5만229대에서 올해 4만2200대로 16% 감소했다.

규제를 피해 지난해 말 미리 고가 법인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해 12월 수입차 판매량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6.5%로 지난해 전체 평균인 39.7%보다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외부 시선을 신경 쓰는 국내 소비자 특성상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미리 구매한 고객도 일부 있다"며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럭셔리카 판매량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상반기 가격대별 수입차 판매량 추이 (단위: 대)



2023년 상반기 > 2024년 상반기 증감률

3000만원 미만	0	1	-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3108	2272	-26.9%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만1131	9508	-14.6%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4만4310	4만5339	2.3%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만4837	3만9327	12.9%
1억원 이상 1억5000만원 미만	2만1313	1만7960	-15.7%
1억5000만원 이상	1만5926	1만1218	-29.6%
기타	64	27	-57.8%
합계	13만689	12만5652	-3.9%

*자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MTQ 머니투데이

상반기 가격대별 수입차 판매량 추이/그래픽=윤선정

'연두색 번호판' 기피...슈퍼카 판매 확 줄었다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407140032&t=NN>

14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벤틀리,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 등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이 1억5천만원 이상인 6개 수입차 브랜드의 올해 1~6월 판매량은 1천167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2천252대)에 비해 48.2% 줄어든 수치다.

테슬라를 제외한 전체 수입차 브랜드의 같은 기간 판매량 감소 폭(17.2%↓)보다 크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마이바흐(1천345대→535대, 60.2%↓), 벤틀리(389대→142대, 63.5%↓), 롤스로이스(156대→95대, 39.1%↓) 등 3개 브랜드의 판매량이 크게 줄었다.

반면 람보르기니는 196대(7.7%↑), 페라리는 165대(1.2%↑), 맥라렌은 33대(94.1%↑) 판매

하며 작년 상반기에 비해 성장했다.

수입차 업계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8천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등이 초고가 브랜드의 판매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들 브랜드의 법인차 비율은 모델별로 많겠는 70%에 달한다.